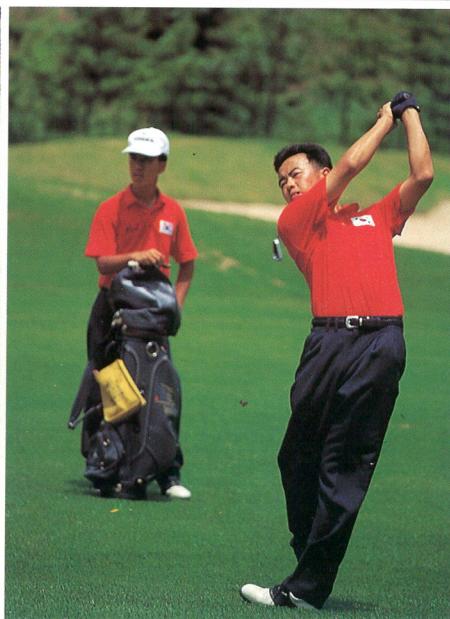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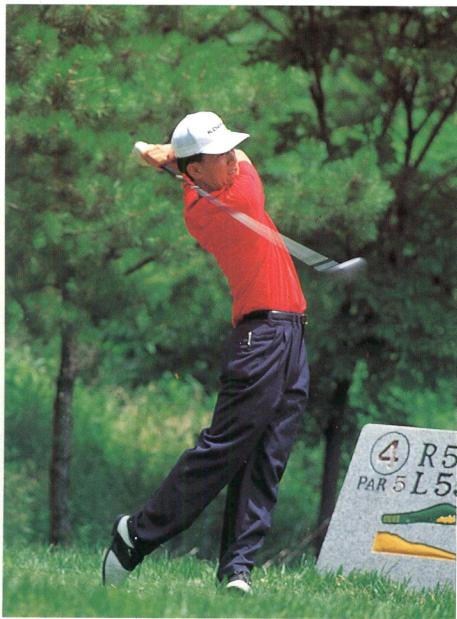


1993년 7월 30일발행 (제10호) 발행인: 이동찬 발행처 : 대한골프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783-4748, 9 편집디자인 : 한국편집아카데미 269-1561

Golf

1
93 호



대한골프협회
KOREA GOLF ASSOCIATION

韓國골프學會 창립과 發展方向



宋相現

(한국 골프학회회장)

육단체이므로 그동안 그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과 경기 기회의 확보를 위하여 주된 노력을 경주하여 왔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선수권 대회 개최를 위한 골프장 사용 교섭 등 여러 잡다하고도 어려운 일에 몰두하다가 보니 大學聯盟이 진지한 학문적 연구활동을 병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大學聯盟의 研究活動 본격화 위해 發足

따라서 오래전부터 연맹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교수들은 물론 골프를 생업으로 하거나 이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용하여 골프에 대한 진지한 研究活動을 수행할 종합적 學術단체를 구성할 필요를 절감하여 왔던 것이다.

혹시 골프는 스포츠인데 골프學이라고 하는 학문의 장르도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골프를 學術的으로 연구하고 조명하는 골프학은 결코 새로운 概念은 아니다. 이미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일찌기 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이런 차에 韓國골프學會의 창립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사여서 日本골프學會 회장도 창립총회에 참석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 골프를 올림픽 종목으로 편입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

1993년 6월 1일 마침내 韓國골프學會가 韓國大學골프聯盟을 주축으로 하여 탄생하였다. 지난 10년간 韓國大學골프聯盟의 창립과 그 운영에 관여해오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 大學골프聯盟의 여러 현안문제 중 하나가 골프학회의 창립이었다.

大學골프聯盟은 기본적으로 大學生 선수를 위한 체

도 계속되고 있다. 골프는 본래 건전하고 신사적이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여 스스로의 인격도아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이 여러가지로 왜곡되고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골프학회는 이같은 여러가지 인식부족과 여건미비로 인하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출범이 늦은 감이 있다.

골프 관련學問의 總體的 研究計劃

앞으로 韓國골프學會는 골프歷史, 골프文化, 골프地理, 골프教育, 골프經濟, 골프經營, 골프政治, 골프行政, 골프外交, 골프倫理, 골프法律, 골프社會學, 골프醫學, 골프哲學, 골프工學 등 골프에 관한 총체적 현상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연구를 통해서 골프의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인식을 바로잡는 일방,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골프를 學問으로서 가르치고 이론과 실기 양면에서 괄목할만한 業績을 내고 있다. 대학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學問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마련할 생각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골프와 관련된 각종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목록화하는 등 기초작업을 다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골프학총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같은 學術活動을 통하여 각종 제도나 운영관행의 개선을 추구하고 골프 본래적인 건전한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며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학문적이고 이론적으로 나침판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韓國골프學會의 이와 같은 계획은 정부관계부처, 각종 체육단체, 골프협회, 골프사업장, 기타 골프지도자와 골프 동호인 제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 기회에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한다.